

기러기아빠의 경제적 삶과 가정생활

김 성 숙(계명대학교 전임강사)

I. 연구의 목적과 범위

1.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기러기 아빠'들의 경제적인 생활 모습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기러기아빠란 가족을 해외로 보내고 국내에서 혼자 남아 직장생활을 해서 생활비를 송금하는 남성을 일컫는다. 기러기아빠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없지만 매년 2만명이상이 조기유학을 떠난다고 하고 또 우리 주변에서 기러기 아빠들을 만나는 일이 어렵지 않은 것으로만 봐도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짐작된다. 이토록 몇 년 사이에 양산된 기러기아빠들은 한국 남성의 문제로, 혹은 신가족 형태로 사회적 관심이자 연구 주제가 되고 있다. 우선 기러기 아빠들의 사고소식들은 이들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여론을 형성시키고 있다. 한편 학문적으로는 이러한 기러기가족을 '포스트모던'가족 혹은 탈근대가족의 신호인가를 논의 중에 있다.

비동거가족에 대한 연구를 포함하면 더 많겠지만 직접적인 기러기 아빠에 대한 연구만도 벌써 몇 편이 나와 있다. 기존 연구들은 포괄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었고 모두 질적 연구방법을 채택하고 있었다. 이 연구들 가운데 '남성'자체에 대한 시각으로 연구를 한 경우는 세 편에 불과하였는데 남성이 겪는 내면적 어려움이나 관계적 어려움을 주로 피력하고 있었고 경제적인 문제를 부차적으로 혹은 배경적으로 다루고 있었다.

본 연구자는 처음부터 한국 남성의 새로운 유형인 기러기아빠의 입장에서 살펴보되 경제적인 측면에서 생활 모습을 심층적으로 살펴보고자 시작하였다. 그리고 기러기아빠에 대한 양적 접근이 상당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경제상황의 변화를 묻는 내용에 대한 설문 응답이 부정확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질적 접근방법을 채택하였다. 연구가 진전되면서 기러기아빠의 경제적 부양정도과 주관적 부담정도에서 시작한 연구 내용이 자연스럽게 그들이 기러기 아빠생활을 함으로써 기대하는 성과가 무엇인지로 관심이 옮겨갔다. 더 나아가 기러기아빠들이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는 과정, 또 그들이 경험한 어려움, 자아존재인식과 같은 비경제적 측면에 대해서 연구가 진행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질적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기러기 아빠 생활로 인한 비용과 성과라는 분석구조에 따라 기러기 아빠의 경제적 및 비경제적 생활 변화를 진단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기러기 아빠들의 생활 적응과정을 설명하고 그 과정에서 겪는 문제들을 유형화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범위

본 연구는 질적 연구방법인 '면접'을 통한 문화기술지 사례연구에 해당한다. 따라서 제보자들의 매우 한정된 사례들을 통해 일반화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본 연구의 내용이 기러기아빠의 일반화된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진다. 그리고 면접이 진행되었던 2005년 10월~11월 사이의 사회적 분위기는 면접 섭외 및 진행에 상당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기러기 아빠들의 잇따른 사망 사건들이 발생하였고 또 현지 기러기 가족의 엄마들에 대한 부정적인 방송 프로그램은 기러기아빠들을 위축시켰다. 기러기 아빠들이 면접을 꺼리는 경우가 많아서 본 연구에서는 심층면접 이외에 서면면접을 병행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심층면접에 응한 기러기아빠들은 대체로 기러기아빠생활을 완료하신 경우가 많았고 긍정적인 결과를 얻은 경우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 가운데 심층면접 자료는 어느 정도 기러기아빠 생활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경향이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언론보도 기사를 활용한 질적 내용 분석을 하였다. 제보자의 확보가 어려웠으므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제보자를 추천받았고 면접에 기꺼이 응한 경우에 만 면접을 하였기 때문에 제보자의 선정에 있어서 임의성을 갖는 한계를 가진다.

주요 연구의 문제들은 첫째, 기러기아빠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둘째, 기러기아빠 생활의 비용 측면은 어떻게 구성되는가, 구체적으로 경제적 비용과 비경제적 비용은 어떠한가, 둘째, 기러기아빠들이 기대하는 성과는 어떠한가, 셋째, 기러기아빠가 새로운 독거생활에 적응하는 과정은 어떠한가, 넷째, 그 과정에서 직면한 문제의 주요 유형은 무엇이며 해결의 실마리가 있는가이다. 첫 번째 연구 문제는 문헌고찰을 통해서 추정하였고 두 번째부터 연구문제들은 심층 면접과 서면 면접을 통한 사례연구를 하였다.

II. 문헌 연구

질적 연구에서 문헌 고찰을 어느 범위까지 이용되어야 하는가의 문제에 대해 몇 가지 관점이 있다. 일단 연구자는 현장작업을 하기 전에 문헌을 살펴보아서는 안된다는 관점이 있다. 또 다른 관점은 연구자는 이전의 연구결과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선택적으로 이용하여야 한다는 관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후자의 관점에 따라 기존 문헌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판단하였다. 그 이유는 기러기 아빠와 관련된 연구들이 많지 않지만 그 가운데 경제생활이나 경제적 문제점에 대한 측면을 연구한 자료가 많지 않으므로 연구자가 현장에서 큰 영향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장에서 연구를 시작한 초기에는 기존 문헌을 숙지하지 않은 상태였고 심층면접과 신문스크랩이 진행되면서 문헌 고찰을 하였으므로 현장에서의 독립적인 관점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1. 기러기 아빠에 대한 정의와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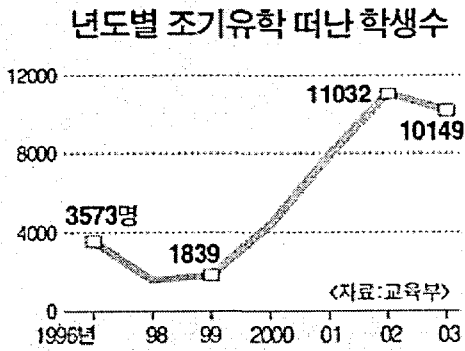
'기러기 아빠'는 학술적으로 합의가 되었거나 규정된 용어는 아니며 우리 사회의 독특하고 새로운 가족형태에서 기인된 용어이다. 하지만 최근에 이루어진 학술연구에서 기러기가족, 기러기아빠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기러기 아빠'를 학술용어로 사용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인다. 또 2004년도 새로 출간된 국어사전 「훈민정음」(금성출판사)에서 본 용어가 수록되었다. 그에 의하면 기러기 아빠란, 자녀를 외국에서 공부시키기 위해 아내와 자녀를 외국에 보내 놓고 국내에서 혼자 생활하는 남자라고 정의된다.

기존의 가족 연구를 살펴보면 기러기 아빠와 관련해서 학술적인 탐구대상은 비동거 가족, 분거 가족, 떨어져 사는 부부이다. 최근에는 이들을 통칭해서 비동거 가족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 비동거 가족은 크게 국내 비동거 가족과 국제적 비동거 가족으로 나뉘어 지며 기러기 아빠는 국제적 비동거 가족에 해당된다. 거주지역이 국내든 국제든지 가족간의 비동거로 인해 발생하는 가족문제는 가족관계 문제나 건강악화, 부부 성관계 등 공통적인 측면이 있으나 국제적 비동거가족의 경우 그 심각성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기러기 가족의 이혼 등 가족해체의 정도라든지, 혼자 떨어져 생활하는 기러기 아빠들의 자살 및 돌연사, 아빠와 자녀간의 문화적 충돌 등 가족문제의 심각성이 더 심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기러기 아빠의 경우 비동거의 가장 큰 이유가 '경제적 문제'에 있기 때문에 외부로 드러나는 표면적 가족문제 이면에 내면적으로 경제적 문제가 항상 내재되어 있다.

잇따른 기러기아빠들의 사망 사건들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을 정도인데 그것은 우리 주변에 많은 기러기 아빠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반증한다. 하지만 한국의 기러기 가족의 규모에 대한 명확한 통계는 없고 대신에 조기유학생 통계나, 유학생금 통계 정도로 그 규모를 추산하고 있다. 조기 유학생의 경우 부모와 동반하지 않는 경우, 또 어머니가 아닌 아버지와 동반하는 경우 등에 외적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어머니와 동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리 지표로 활용가능하다.

조기유학생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와 16개 시도교육청의 자료에 의하면 1996년에 3,573명이던 연간 조기 유학생은 1998년과 1999년 IMF 시절에 감소한 이후 지속적으로 급증해서 2003년도에는 1만149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초등학생의 분포가 가장 높는데 이러한 경향은 2002년에 비해 2003년~2004년도에 더욱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아래의 그림 참조, 조선일보, 2005.1.26).

또 다른 언론 보도에 따르면 1998년도 1,562명이던 조기유학생이 2002년도에는 15,000여명이 되었고 2003년에는 20,000명이 넘고(문화일보, 2004. 2.19). 2004년에는 초·중·고 조기 유학생이 2만920명(초등생 1만1,059명, 중학생 4,372명, 고교생 5,088명)에 이른다고 한다(한겨레, 2005.10.19). 재정경제부가 경제정책조정회의에 보고한 '최근 소비동향과 대응방안'에 따르면 전체 해외연수생은 지난해에 20만천명으로 전년의 16만4천명보다 22.6%가 늘었으며 초·중·고 조기 유학생수도 2003년에 10만명을 넘어섰다(MBN, 2005.7.15).



<그림1> 년도별 조기유학 학생수
자료 : 조선일보, 2005.1.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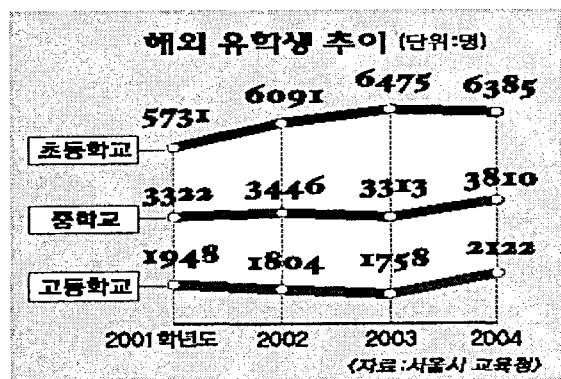


<그림2> 출국 유학생 증감률
자료 :MBC, 2004.12.11

2005년도 3월 29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 시내에서만 조기 유학을 간 초·중·고교생은 2004학년도에는 사상 최대치인 1만 2317명이나 되었다. 순수유학, 해외이주와 파견동행의 이유로 외국의 교육기관, 연수기관 등에서 6개월 이상 공부한 학생은 2001학년도 1만 1,001명, 2002학년도 1만 1,341명, 2003학년도 1만 1,546명으로 꾸준히 증가해 왔다. 이 가운데 순수 유학자 수는 2003학년도에는 조기 유학생의 38.3%였지만 2004학년도에는 48.1%로 거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증가했다.

고등학생의 경우 2001학년도 1,948명 이후 계속 증가해 2004학년도에는 2,122명이 조기유학을 갔으며, 중학생 역시 2001학년도 3,322명에서 점차 증가, 2004학년도에는 3,810명이 조기유학을 떠났다. 초등학교도 2001학년도 5,731명에서 2003학년도 6,475명까지 늘었다가 지난해에는 6,385명으로 약간 감소했다. 하지만 부모의 파견 근무동행이나 이민 등의 이유가 아닌 순수유학은 2003학년도 1,558명에서 38.6% 증가한 2,160명으로 크게 늘었다 (파이낸셜뉴스, 2005.3.29).

그리고 조기유학생의 국내 귀국에 대한 통계에 따르면(2005. 정기 국정감사 보고자료), 외국에서 국내 학교로 편입한 학생은 2002년엔 7,300명, 2003년엔 9,412명이었고 2005년에는 상반기까지 5,464명이 되돌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그리고 200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국내로 되 돌아온 조기유학생수는 3만명에 이른다(조선일보, 2005.9.15). 이와 같은 정부의 통계자료 및 언론 보도를 종합해 볼 때 총 조기 유학생수는 10만명이상일 것으로 보이며 매년 2만명 정도의 조기 유학생이 출국하고 1만명 정도가 국내로 들어오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3> 해외 유학생 추이
(조선일보, 2005.9.15)

유학연수비 적자추이도 기러기가족을 추정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1~3월중에 유학/연수비로 나간 비용은 7억 5430만달러(약 7,543억원)나 된다. 이는 작년 동기보다 무려 37.4%나 급증하였다. 연수-유학비 적자는 2002년에 14억970만달러에서 2003년에 18억3,990만달러로 30.5% 늘어났고 2004년도에는 24

억7,120만달러(약2조5000억원)로 34.3% 증가했다(머니투데이, 2005.5.15).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각 가구의 월평균 가계수지에서 기타비소비지출은 교육비 송금, 생활비 보조로 구성된다. 기타비소비지출은 2004년도 2/4분기에 월평균 12만8천5백원에서 2005년 2/4분기에는 15만5천원으로 20.7%로 급증하였다.

<표1> 가구당 월평균 비소비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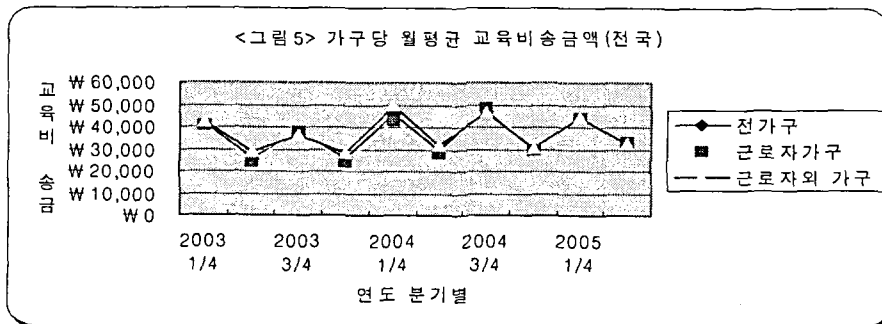
(단위 : 천원, 전년동기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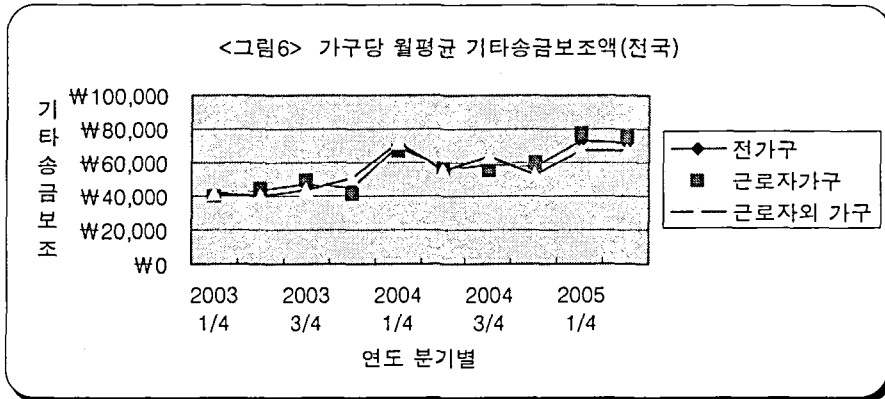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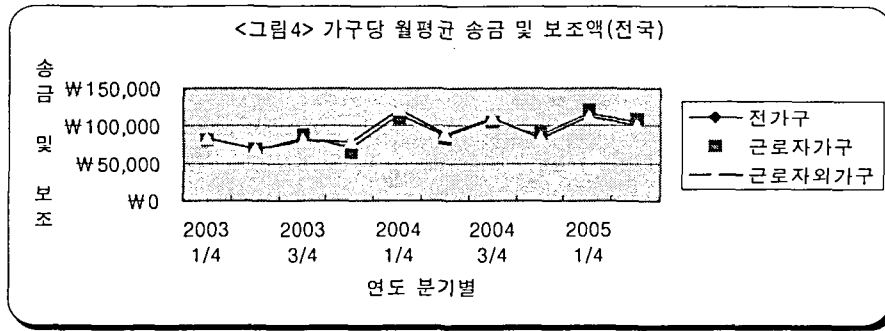
구 분	2004. 2/4		2005. 1/4		2005. 2/4		
		증감률		증감률	구성비	증감률	
비 소비 지 출	374.6	10.6	413.5	7.1	410.4	100.0	9.6
· 조 세	97.4	10.2	94.6	8.6	99.5	24.2	2.2
· 공 직 연 금	87.1	8.0	87.7	2.0	90.1	22.0	3.5
· 사 회 보 험	61.6	7.0	59.3	5.4	65.7	16.0	6.6
· 기타비소비지출	128.5	14.8	171.8	9.8	155.0	37.8	20.7

자료: 통계청, 2005년도 2/4분기 가계수지 동향. 2005.8.2

최근 급증하고 있는 비소비지출의 상세한 내역을 살펴보기 위해 2003년 이후 가구당 월평균 송금 및 보조 지출액의 추이에 대한 통계청 자료를 토대로 그래프로 나타내 보았다. 교육비 송금 및 보조 지출액은 2004년도 1사분기와 2005년도 3사분기에 가장 높았으며 2003년도 1사분기 이후 증감추이는 근로자가구나 근로자외가구간에 차이가 없었다. 그리고 2004년도 3사분기까지는 근로자외 가구의 송금 및 보조 지출액이 근로자가구보다 높았으나 2004년도 4사분기이후부터 근로자 가구의 해당 지출액이 근로자외가구의 지출액보다 더 높았다.

교육비 송금과 기타 송금 보조 각각의 추이를 살펴보면, 교육비 송금의 추이는 각년도 1사분기와 3사분기 즉 대학등록금 납부기간에 상승했다가 하락하는 경향을 뚜렷하게 보이고 있고 규모 면에서 약간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생활비보조에 해당하는 기타송금보조의 경우 2004년도 1사분기와 2005년도에 가장 높았고 2003년도 이후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다. 이러한 추세는 앞에서 제시한 바대로 최근 조기유학생 증가추세와 부합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2004년 이후 비소비지출의 급증은 조기유학생의 급증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자료: 통계청, 2005년도 1/4분기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전국) 자료를 재구성

2. 선행연구 고찰

기러기 아빠의 유형은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우선 첫 번째 유형은 해외에 가족이 함께 있어 아빠만 귀국하는 경우다. 유학이나 외국주재 상사원으로 근무하다 부인과 아이들은 외국에 남는 경우다. 가장 흔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는 아내와 아이들만 외국에 나가는 경우이다. 이들은 늘 한 울타리에서 살았고 외국생활을 함께 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기러기 아빠가 되면 가장 힘들어한다. 셋째는 가족 전체가 외국으로 이민을 왔다가 자녀와 아내는 외국에 남고 아빠만 양쪽을 오가는 경우다(Korean Journal www.kjol.com, 2002.12.27).

최근에 기러기 아빠에 대하여 몇 편의 학술적 연구가 나타나고 있다. 우선 최양숙(2005)의 박사학위 논문 “비동거 가족경험-기러기아빠를 중심으로”, 조 은(2004)의 ‘초국적 가족/탈근대 가족: 기러기 가족을 어떻게 볼 것인가’와 ‘세계화의 최첨단에 선 한국의 가족 : 원정유학 모자녀 가족 사례를 중심으로’, 그리고 엄명용(2002)의 ‘장기분거가족의 전문직 남성 문제: 기러기 아빠’, 김양희·장은정(2004)의 ‘장기 분거 가족에 관한 탐색적 연구-기러기 가족에 초점을 맞추어’, 최경석 외(2003)의 『한국 가족 복지 이해』에서 ‘기러기 가족과 가족 복지’가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이외에 조명덕(2000)의 조기유학가족의 유형과 그것이 가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찰도 관련된다.

우선 이들 연구들은 연구대상을 기러기 가족 실태 전반을 다루고 있으며 연구방법면에서 질적 연구방법을 주요 방법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연구경향을 정리해 보면 최양숙(2005), 엄명용(2002)의 연구와 김양희·장은정(2004)의 연구는 ‘기러기 아빠’를 직접적으로 다

루고 있다는 면에서 본 연구 내용과 가장 근접해 있다. 조 은(2004)의 연구와 최경석(2001), 조명덕(2000) 등의 연구는 기러기가족을 초점을 두고 있다. 또 연구의 궁극적 목적면에서 기러기가족의 성격을 규명하려는 연구경향과 기러기가족의 사회복지 증진 방안을 연구한 논문으로 구분할 수도 있다. 전자는 조 은(2004), 김양희·장은정(2004), 최양숙(2005) 연구가 그 예이고 후자의 경우는 엄명용(2002), 최경석(2001)가 예이다. 이 가운데 기러기 아빠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연구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엄명용(2002)은 7명의 전문직 남성들에 대하여 일대일 면접을 실시한 질적 연구이다. 연구결과를 보면 기러기아빠 생활 이후의 신체·심리·사회·경제적 변화, 분거 결정과정과 그 후의 만족상태, 분거 후 가족생활의 변화 및 장단점, 분거생활 대처 상황 및 사회적 지원, 가족개념 및 미래의 계획 등을 생활 전반을 설명하고 있다. 그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문직 기러기 아빠 7인이 겪는 경제적 변화는 주거 규모의 축소, 용돈이나 사회활동비용 축소 경향이 있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 '기러기아빠' 봉급만으로 두 집 살림을 감당하기 어려워 부수입을 챙기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그는 결론에서 기러기 아빠의 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안하고 있는데, 혼자 해결할 수 없는 식사 서비스, 아빠와 자녀 및 어머니 사이에 커져 가는 문화적 격차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 엄마와 생활하는 아이들에게 결핍되기 쉬운 남성역할모델과 정서적 지지를 보완할 수 있는 대책, 가정해체 방지를 위한 대책, 기러기 아빠의 응급상황 시 대응체계의 개발, 주변의 이해와 협조 유도방안, 가정불화의 도피방안 등을 제안하고 있다.

김양희·장은정(2004)의 연구는 8명의 제보자들에 대한 질적 연구를 통하여 기러기가족을 탐색하였는데, 분석의 입장이 기러기 아빠의 관점이라는 면에서 가치가 있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기러기 아빠가 살아가는 모습의 특징을 내면의 세계: 자유로움과 자기절제 및 관리, 주변과의 관계: 외로움, 그리고 성의 문제 등 세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또 가족과의 관계유지 방식으로 남편-아내의 관계에 대하여 재해석하고 있고 '아버지'라는 자리의 의미를 분석하고 있다.

조 은(2004)의 연구는 보다 기러기가족을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바라다본다. 그의 연구는 2001년부터 8월까지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도시에서 교환교수로 머물면서 20가족을 심층면담하고 포커스 그룹 면접을 병행하여 연구하였다. 그에 의하면 '기러기 가족'은 영어가 되는 엄마와 돈 있는 아빠의 조합이 기본 구도라고 본다. '자식이 먼저이고 다음이 남편이다'라는 응답자의 멘트는 도구적 가족주의를 표출한다고 지적한다. 그는 불안정한 부부생활을 토대로 한 안정된 가족의 미래를 지향하는 모순성을 드러내는 新글로벌 가족이 한국사회에서 탈근대 가족의 신호탄으로 볼 것인가하는 의문을 던지고 있다. 이 연구결과에 비추어 볼 때 '기러기 아빠'는 돈 있는 존재이자 가족을 위한 도구로 이해된다.

최양숙(2005)의 연구는 근거이론에 기초하여, 기러기 아빠의 비동거가족 경험 패러다임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20명의 기러기아빠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하였다. 그의 연구결과를 정리해 보면 비정상적인 이상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기러기 아빠를 선택하게 되는 이유(인과적 조건과 맥락적 조건)로 '부모자녀 동일체감'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 및 과거의 부정적 경험을 찾아냈다. 따라서 뚜렷하게 나타난 기러기 가족의 현상(중심 현상)은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내 자녀 잘 키우기'로 나타났고 이러한 현상은 교육문제, 사회분위기, 가족구성원의 특징, 국제화 및 세계화·정보화 추세라는 조건(중재적 조건)으로 강화되면서 가족 비동거(상호/비상호 전략)로 귀결된다. 끝

으로 기러기 아빠는 4가지의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데 만족, 일시적 독신생활의 균형을 누림, 그래도 가야함, 가족 해체이다. 또 그의 연구에서 기러기 아빠가 비동거 가족 생활에 적응해가는 과정을 당황->방황->인내->수용의 단계로 나타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의 연구에서 기러기 아빠의 '경제생활'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기러기 아빠는 일정 기간 불가피한 독거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게 된다. 예를 들면 취미개발, 각종 모임, 운동, 술담배, 살림하기, 일에 몰두하기, 친구와 이야기하기, 전문적인 분야 개발, 단순한 생활, 종교생활, 시간에 맡김, 개 키우기, 외도, 감정적 차단 등이 나타났다. 또 독거생활의 어려움이 심화되어도 한국 교육의 열악한 상황을 볼 때 자신의 자녀 조기 유학 결정이 잘 된 것이라고 합리화하는 것 역시 중요한 전략이었다. 기러기 가족 등의 비동거 가족 유형이 포스트모던 시대의 가족변화, 가족의 다양성의 한 유형인가하는 논제가 있다. 가족의 포스트모던화로서, 첫째 부모의 자녀 양육자로서의 역할 상실, 둘째 부부관계의 불안정화, 셋째 등지로서의 가정의 해체를 들고 있다. 최양숙은 그의 논문에서 기러기가족 등의 비동거가족이 포스트모던 시대의 가족 변화의 한 유형일 수 있음을 주장하면서 위의 세가지 특성이 기러기가족에게서 발견되고 있음을 설명한다. 조 은도 기러기 가족이 가족의 탈근대 가족의 신호탄인지를 지켜보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III. 연구방법과 연구대상

1.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자녀와 아내를 외국에 유학 보내고 한국에서 홀로 남아 생활하고 있는 '기러기아빠'를 대상으로 심층면접과 개방형 구조화된 질문지 조사, 그리고 2001년 이후 언론에 보도된 기러기아빠관련 사건에 대한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문화기술적 사례연구를 위해 본 연구는 심층면접을 가장 중요한 연구 방법으로 채택하였다. 기러기 아빠는 모집단을 명확히 추정하기 힘들기 때문에 표본에 대해 연구자는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의 소개를 통해 개별적인 소수 사례에 접근하였다. 그다음 연구자의 질문에 기꺼이 응답해주고 이야기하기를 즐기는 대상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연구자는 기러기아빠들의 인터넷 사이트 활용을 원하였으나 협조를 얻기 어려워 연구자의 개인적 연결을 통하여 근접성과 편의성을 활용하여 이루어졌다. 더욱이 개인적 연결을 통해 기러기 아빠를 소개받은 후에도 면접에 응하려는 경우가 매우 적었다. 특히 회사원이나 전문직들은 면접을 꺼리는 경향이 많았고 직업이 교수인 기러기아빠들은 면접을 상대적으로 잘 허락하였다. 이는 최근 기러기아빠와 관련된 사건들이 다소 발생하면서 사회적 여론이 부정적인 것에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보인다. 주로 면접은 낮 시간 동안 제보자의 직장에서 평균 1시간 30분~2시간 정도 이루어졌다.

심층면접은 연구자가 직접 하였으며 한 사례의 면접이 끝날 때마다 대상에 관한 간략한 보고서를 즉시 작성하였다. 우선 면접 대상에게 녹음의 허락을 구한 후 녹음을 허락하지 않은 경우에는

면접과정에서 메모를 하였다. 심층면접시 질문은 기러기아빠가 된 후 어떻게 지내왔는지 이야기하도록 한 후 경제적 생활 부분은 확인질문 혹은 반대질문 등으로 답변을 보다 자세히 듣고자 하였다. 연구문제와 관련된 직접적인 질문은 답변의 범위를 제한할 가능성을 배제하고자 최대한 회피하였으나 경제적인 부분은 제보자도 기피하는 내용이므로 확인 질문시에 솔직하고 담담하게 질문하였다. 면접과정에서 이야기는 제보자가 주도하였고 이야기의 내용은 자신에 대한 것보다는 외국에 간 가족들의 이야기를 주로 많이 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 이야기 내용은 경제적인 내용보다는 비경제적인 문제들로 수렴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오히려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1시간 이상의 면접이 진행된 후에야 솔직한 태도로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면접이 다 끝난 후에 제보자들 대부분은 자신의 비밀 이야기를 다 한 것 같으며 쑥스러워 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대면 면접을 곤란하게 생각하는 면접 대상들에게는 차선의 방법으로 서면 면접을 시도하였다. 우선 간략한 개방형 구조화된 질문지(총 12문항)를 이메일을 통해 전달하고 답변을 받았으며 보충질문을 하기 위해 2번씩 메일을 주고받았다. 개방형 구조화된 질문지는 2회의 심층면접을 통해 추출된 주요 질문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족 구성과 기러기가족이 된 과정을 물어보는 문항, 송금비용 및 이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질문하는 문항, 유학 송금으로 인해 경제적 곤란을 겪었던 경험이나 현재 부채 상태를 질문하는 문항, 현재 소비생활과 달라진 생활 모습을 물어보는 문항, 적금이나 보험 등 금전관리의 변동 사항, 가족내에서 자신의 역할에 대한 느낌과 만약 다시 선택할 수 있다면 선택할 것인가 등을 질문하는 문항들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문항에 대한 서면답변을 연구 자료로 활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접에 응한 제보자들의 특성은 조기유학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그 성과에 대해서 보다 과장적이고 송금액수에 대해서는 축소하려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특히 경제적 문제가 있는 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제보자들 다수가 경제적 문제를 별로 겪지 않았으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강변하는 경향도 나타났다. 따라서 심층면접과 개방형 구조화된 질문지 조사에서 나타난 몇몇 경제적 문제 사례 분석을 보완하고자 2001년부터 발생한 기러기아빠관련 언론 기사들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인 기사들은 2001년 1월 1일부터 2005년 10월 31일까지 발생한 기러기아빠의 사망, 이혼, 질병, 이벤트, 사설, 기획기사이며 기사검색은 '한국언론재단'에서 제공하는 기사검색사이트(www.kinds.or.kr)를 이용하여 총 1,330건의 기사를 검색하였다. 이 가운데 다양한 매체에서 중복 보도된 관련기사들, 신문 등의 기획기사나 사설처럼 중요하게 다루어졌던 사건에 관한 기사들, 병원이나 대학에서 조사 발표된 신빙성 있는 자료관련 기사들을 선택하였다. 그 다음 이러한 기사들 가운데 통계자료는 기러기 아빠 규모를 추정하거나 기러기 아빠의 생활모습을 서술하는 자료로 활용하였다. 그리고 이 기사들 가운데 기러기 아빠 개인의 경제생활을 다루고 있는 기사들만을 채택하여 그 사례들을 정리하였는데 총 16개의 사례가 선정되었다. 보통 언론 기사들에 대한 양적 분석은 빈도를 측정하거나 다루어진 분량 등을 측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질적 연구방법을 채택한 본 연구의 경우 이러한 분석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여 선정된 기사들에 나타난 20개의 '사례'를 발췌하여 그 질적 내용을 분석하였다.

2. 연구대상

연구대상으로서 기러기아빠는 면접을 기피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었다. 면접기간인 2005년 10월~11월은 기러기아빠의 자살과 돌연사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사회적으로 주된 관심을 받는 시기였기 때문에 기러기아빠들은 상당수 자신이 기러기아빠임을 속이려고까지 하는 분위기였다. 특히 직업이 회사원이나 공무원들은 '좀 창피해서'라고 하면서 면접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았다.

<표2> 제보자의 특성

		이름(가명, 나이,거주지)	직업(부업)	유학처	배우자	자녀(세)	집	연소득	비동거기간
심층인터뷰	사례1	박상우(52), 대구	대학 교수	미국 LA	52세	딸 2명 (23,21)	원룸	5500만원	5년 6개월
	사례2	이해일(47), 대구	대학 교수	미국 랄리(NC)	47세	딸(23) 아들(21)	원룸	7000만원	2년
	사례3	강동원(46), 대구	대학 교수	미국 중부	43세	아들 2명 (17, 13)	아파트	6500만원	3개월
	사례4	이삼순(47), 서울	회사원	미국 보스턴	남편 46세	딸(15) 아들(11)	아파트	4000만원	2년
개방형 질문지	사례5	차승재(40), 서울	회사원 (컨설팅)	캐나다 토론토	아내 40세	아들(12)	부모동거	1억여원	3년 6개월
	사례6	김현우(48), 서울	중소기업 사장	캐나다 밴쿠버	아내 45세	아들(17)	아파트	8000만원	4년 11개월
	사례7	권진수(42), 서울	회사 임원	미국 샌디에고	아내 38세	딸 2명 (12,10)	부모동거	1억원	1년 3개월
	사례8	황상국(68) 대구	무역업 사장	영국 런던	아내 65세	아들 2명 (38,36)	주택	-	8년간
	사례9	손강호(41) 경북	회사원 및자영업	뉴질랜드 Dunedin	아내 36세	아들(9) 딸(8)	부모동거	3500만원	3년
	사례10	신제동(41) 대구	회사원	캐나다 밴쿠버	아내 41세	딸 2명 (12,10)	원룸	4000만원	2년

기러기아빠의 심층면접 세가지 사례 모두 직업이 교수였다. 개방형 질문지 조사의 경우 세가지 사례는 회사원 또는 중소기업 사장을 대상으로 하였다.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의사 또는 변호사, 교수 등 전문직 남성을 주요 대상으로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기러기아빠가 전문직에서 중산층으로 확산되는 추세를 감안하여 회사원들을 주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또 신문기사 내용분석의 사례들은 의사나 교수, 회사원 또는 중소기업 사장 등 직업별로 다양하였다. 분석의 보충적인 사항으로 남성으로서 기러기아빠의 문제와 여성으로서 기러기엄마의 문제를 대비하고자 기러기 엄마(남편과 자녀를 외국에 보내고 국내에서 생활하는 엄마) 한 사례를 심층 면접하였다.

IV. 기러기 아빠 생활의 비용

1. 경제적 비용

1) 송금비용

본 연구의 제보자들이 외국의 가정으로 송금한 액수는 최저 2천 4백만원에서 1억 이상까지 매우 편차가 컸다. 이토록 편차가 큰 이유는 거주 지역과 주거형태, 현지 생활수준, 아내의 소득여부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매일경제신문이 2003년 8월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기러기 아빠들의 월평균 송금액은 4백18만원 정도로 나타났다(매일경제, 2003.8.31). 이 조사이후 2년이상 시간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기러기아빠의 월평균송금액은 이보다 높아졌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제보자들의 경우를 볼 때 월500만원~600만원을 송금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사례2, 사례3, 사례5, 사례6, 사례7, <표4> 참조)

<표3> 제보자들의 외국 송금 규모

제보자	송금액(연봉의 %)	특징
사례1	3천6백만원(60%)	문화생활비 전혀 없었음, 아내 아르바이트(월 500~1,000달러)
사례2	3천5백만원(50%)	문화생활 별로 하지 않음, 아내 아르바이트(월 1,000달러)
사례3	6천만원(90%)	문화생활 약간 즐기고 있음
사례4	1억 정도(90%)	학교 하우징 거주(35평), 문화생활비, 음악과 영어 위주의 사교육비 등 많이 지출, 남편월급 포함
사례5	7천~8천만원(70%)	어느 정도 문화생활, 음악과 운동 위주의 사교육비(50~60만원)
사례6	7천2백만원(80%)	
사례7	6천만원(60%)	사교육비(1,000달러 정도), 주거비(1,500달러)
사례8	1억4천만원(재산처분)	비상금
사례9	3천5백만원(100%)	부업(가게운영)소득으로 국내 생활
사례10	2천4백만원(60%)	아내 아르바이트(월 1500달러)

본 연구의 제보자들의 경우, 송금비용의 교육 투자 비용은 주로 현지 생활비가 차지한다. 어머니가 자녀와 함께 외국에서 거주하는 경우에 자녀들은 주로 공립학교에 입학하기 때문에 공교육비는 거의 들지 않기 때문이다. 제보자들의 자녀들 모두 공립학교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유학지에서 공교육비는 거의 없었다. 일반적으로 생활비는 주거비, 기초 생활비, 사교육비, 문화생활비 등에 소요된다. 특히 주거비는 고정적 지출이며 필수적인 지출에 해당되는 항목이고 거주지역에 따라 편차가 매우 컸으며 미국 대도시의 경우 주거비 지출액이 매우 컸고 이는 송금액 규모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 사례7의 경우 유학지가 미국 샌디에고인데 월평균 주거비가 1,500달러에 달했으며 아래의 사례까지 포함한 이들 네 제보자들은 주거비의 부담을 가장 크게 느끼고 있었다.

“보스톤은 매우 물가가 높은 곳이어서 주거비가 상당히 높았어요. 우리는 하바드 하우스라고 대학에서 운영하는 곳에 운 좋게 거주했는데 그 곳도 월 200만원 정도였거든요”(사례4)

“저희는 처가식구가 거주하는 LA로 조기유학을 보냈는데, LA 달동네에서 거주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월 1백만원정도 렌트비를 냈습니다”(사례1)

“실제 비용은 집사람이 관리하는 것이라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자동차비용을 포함해서 실거주비용이 월400만원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사례5)

다음으로 현지 생활비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사교육비'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기 유학한 학생들이 현지에 빠르게 적응하기 위해서 '사교육'이 만연되어 있었는데 실제 사교육비는 필수적인 지출영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교육 시행여부에 따라 생활비는 상당히 달랐다. 현지에서 사교육비가 많이 드는 가정일수록 송금액은 매우 높은 경향이 있었다. 예를 들어 사례4(기러기 엄마)의 경우 자녀 2명의 사교육비만 월 평균 1백만원에서 2백만원 들었다고 하였고, 사례4의 경우 사교육비가 50~60만원 이상 든다고 하였다. 사례7의 경우 영어, 악기와 체육활동 등의 사교육비로 매월 100만원 가량 지출하고 있었다.

반면 사례 1의 경우에 '생존'만을 생각했지 사교육비 등은 엄두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사교육비는 전혀 들지 않았고 연 3천만원 정도 송금해도 현지 생활이 가능하였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 외 사례2, 사례3, 사례9, 사례10의 경우는 악기정도만 사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등 사교육비의 부담이 작았다고 한다. 앞의 사교육비에 상당액을 지출하는 경우 송금액은 7천만원에서 1억 여원에 이르고 있었다.

유학 초기에 현지 생활비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정착금이었다. 초기 정착금은 자동차 구입비나 각종 보험비 등인데 유학 초기에 상당액이 지출되고 있었고 또 이러한 항목은 처음 유학 가정의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상대적으로 더 큰 경제적 충격을 주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에서는 자동차 없으면 안되기 때문에 자동차를 필수적으로 장만해야 했는데 그 전에 저금했던 돈을 가지고 샀지.....”(사례1)

“초기정착금에 저는 4만불을 소요했습니다.” (사례7)

“저는 초기에 국내 집을 팔아서 5~6만불을 가지고 갔고 주거나 자동차 등 초기 정착에 드는 경비를 충당하였기 때문에 상당한 basemoney가 되었습니다.”(사례2)

유학지에서 가족들의 생활수준도 송금비용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표4>의 각 사례의 특징을 보면 문화생활을 어느 정도 추구하는 가족인 경우 송금액이 커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사례3의 경우는 문화생활을 어느 정도 하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었고 사례4의 경우는 짧은 유학기간 동안 누릴 수 있는 문화생활을 최대한 누리려고 한 경우이다. 사례5의 경우는 특별한 문화생활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지만 영화나 콘서트, 헬스(엄마), 레저(캠핑, 스키), 외식(주1회 정도) 등을 즐기고 있었다. 이들 사례의 총송금비용은 연 6천만원에서 1억여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제보자들 부인의 수입여부가 송금비용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제보자 가운데 아내가 현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가 세 사례였다. 이들은 친척집 가게나 한인교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는데 소득의 규모는 월 500달러에서 1500달러 수준이었다. 비록 부인이 버는 소득 규모는 작지만 기러기 아빠 입장에서는 적지 않게 위로가 되고 있었다.

“아내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월 오백에서 천달러를 벌고 있었기 때문에 식생활비 등 생활비 걱정은 안했죠. 미국에서야 식생활비는 별로 안드니까”(사례1)

“아내가 친척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월 천오백달러 정도 수입이 있으니 생활비에 보탬이 되고 집값이야 삼촌 집에서 살고 있으니 좀 적게 보내도 되고...”(사례10)

하지만 이 송금액에는 가족 왕복여행비는 포함되지 않고 있다. 가족 왕복여행비까지 포함한다면 위의 송금액보다 연간 1천만원 정도는 더 들어가는 것으로 계산된다. 가족 왕복여행비는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더욱 강화하므로 휴가나 명절이후 경제적 곤란을 더 가중시키므로 오랜만에 가족과의 만남을 통한 가족관계 회복에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시키기도 한다.

“매달 캐나다에 6백만원정도 보냅니다. 방학이나 명절에 서로 오가는 비용 등을 고려하면 1년에 8천만원 정도 드나 봐요.”(캐나다 조기유학시킨 벤처회사 사장 김용민씨, 경향신문 2003.10.21)

“휴가로 보낸 시간과 비용 때문에 이번 달에는 생활비 보내기도 빠듯해진 실정...가족을 만나 따듯한 시간을 보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근심과 외로움만 얻어왔다....”(기러기 아빠 박원장, 매디게이트뉴스, 2005.8.10)

본 연구의 제보자의 경우 연봉의 50~80% 정도를 송금하고 있었고 기존의 저축금은 대부분 초기 정착금에 충당하기 위해 지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보자 가운데 자신 소득의 50~70% 정도 송금하는 경우 ‘힘들기는 했지만 송금하는데 큰 부담을 느끼지 않았다’는 반응인 반면 자신 소득의 80% 정도를 송금하는 제보자의 경우 송금액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부담스럽다고 반응하고 있었다.

2) 재정 상태의 변화

자녀 조기유학에 따른 재정적 부담이 기러기가족의 재정 상태에 어느 정도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는지를 살펴보고자 자녀 유학 후 재정상태의 변화를 질문하여 보았다. 제보자들의 경우 대부분 ‘큰 변화’가 없었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경제적 부담을 상당히 느끼고 있었다. 또 제보자들은 재정적으로 마이너스를 최소화했다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한편 재정적으로 기존 재산 특히 부동산의 처분이 많았고, 저축금의 인출이 다소 나타났다. 그리고 기러기아빠들이 부모와 거주하지 않을 경우 대부분 도심에 있는 원룸이나 작은 아파트로 집을 줄이는 경우도 나타났다. 원룸에 거주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인 지출을 줄이는 한편 여유자금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소비생활의 편의 때문이다. 제보자의 경우 10명의 기러기아빠 가운데 부모와 동거하는 3명을 제외한 7명

가운데 3명은 원룸으로 집을 축소하였고 2명은 작은 아파트로 주거의 규모를 줄였으며 1명은 교외로 이사를 하여 주거 규모를 줄였다.

제보자 가운데 재산을 처분한 경우는 사례2, 사례3, 사례5, 사례8, 사례9, 사례10으로 6명이나 된다. 재산을 처분한 경우 살던 집을 판매하는 경우가 많았고 심한 경우에 소유하는 집 이외에 다른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사례8, 사례9)도 있었다. 사례5의 경우 이민을 갔다가 경제적인 문제로 귀국한 상황으로 이민을 가면서 한국내의 집은 처분을 하였고 대신 현지에서 집을 장만하였다(시가 5억원). 현재 국내에서 부모님과 동거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주거지 필요하지 않지만 자그마한 오피스텔은 투자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다. 또 국내에 들어오면서 보험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 경우 부모와의 동거로 인해 송금이외의 소득을 재테크에 활용하여 조기유학 전후의 재산을 유지하였다.

하지만 그 외 사례들은 부동산 처분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재산상태의 감소를 겪고 있었다. 사례2와 사례3의 경우 조기유학하면서 살던 집을 팔고 다른 아파트를 분양받아 사례8의 경우 유학 가기전 부동산 중 건물 2개를 미리 매매해서 비상금으로 준비했으며 집은 0시의 시내에서 교외로 이사를 하고 12년간 유학 뒷바라지 끝에 가지고 있던 상가 건물을 대부분 처분하였다. 항상 외지 생활에서 돈이 모자랄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미리미리 부동산을 처분해서 비상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사례9의 경우에 적금을 해약하지는 않았으나 가지고 있던 집과 시골에 있던 땅을 처분하였다고 한다.

자녀 송금이나 국내 생활 보전을 위해 기존 저축금을 해약한 제보자는 사례1, 사례4, 사례7, 사례10 등이다. 이들은 주로 초기 정착금 지출을 위해 기존 저축금을 활용하고 있었다. 사례1은 자동차 구입을 위해, 사례4도 자동차 구입과 주거비 마련, 보험가입 등을 위해 사용하였다. 사례7의 경우 “송금하면서 힘들다고 느낀 적이 많았는데 저축한 돈을 축내고 있다”고 하면서 아파트 분양권을 매각하고 약 5천만원을 더 썼다고 한다.

“처음 보낸다고 적금 넣던 거 해약했었네요....그것 빼고는 특별히 달라진 건 없는 거 같은데....보험도 그래로고 부동산도 그대로 있고 집이야 처음 원래 살던 집은 처분하고 내가 사는 작은 원룸 말고는..”(사례10)

사례6의 경우 송금비가 매우 비겁다고 말하면서도 재산의 변화는 거의 없었으며 단지 부채가 생겼지만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한다. 이 제보자는 특별한 경우 주변의 도움도 받고 있다고 하면서도 재정적 변화에 대해 깊은 언급을 회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상당히 재정적 곤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 제보자의 면담 과정에서 주변 사례에 대한 대화를 통해 유학비용을 위해 재산 처분한 예를 확인할 수 있었다. 기러기 엄마의 면담 과정에서 그녀는 자신이 재테크를 매우 잘해서 마이너스가 생기지 않았음을 자랑하면서 한 기러기가족의 경제적 실패사례를 제시하였다.

“기러기엄마 생활을 1년 한 50대 시간강사를 하는데 애 셋을 캐나다 밴쿠버로 아버지 교환교수일 때 보냈습니다. 물가가 보스턴에 비하면 싼데도 불구하고 엄마가 대학 강사이고 아버지의 현지 월급이 많지 않아서 매우 돈 걱정을 많이 했어요. 엄마가 실질적으로 경제적 지원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여요. 결국 돈이 부족해서 분당에 있는

집을 팔고 분양받은 죽전 집을 살렸는데...두 집을 유지하지 못한 이유는 6개월만에 빛이 6천만원이나 졌기 때문이에요. 또 시간강사이셨기 때문에 은행에서 신용대출이 잘 되지 않았어요. 분당집은 그 후 집값이 폭등하고 죽전집은 그대로여서 재테크에 완전히 손해 봤습니다. 그 분은 빛 갚느라 늘 고생했고 항상 돈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았어요”(사례1의 면접 내용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보여주는 사례는 신문기사 내용에서 많이 찾을 수 있는데 이 또한 문제성 적 발이라는 언론 보도 특성 때문일 것이다. 다음은 언론에 보도된 기러기아빠 A씨의 97년도 이후의 현재까지 변화 모습이다. 조기 유학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기는 하였지만 경제적 파탄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만약 기러기 아빠가 경제적 기복이 큰 직업을 가진 경우 경기변동에 따른 위기를 혼자서 극복해야 하는 어려움이 더욱 컸을 것으로 짐작된다.

“벤처 열풍도 다 식어가고 새롭게 진행한 일도 많은 손실을 보게 되자, 실패해서는 안 된다는 강박관념에 더욱 무리하게 일을 처리해 나갔고 가족들에게는 더더욱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걱정할까봐, 20여명의 직원도 15명 10명, 5명으로 줄여 갔지요. 너무도 절망스럽고 힘이 들어서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날 때도 있었지만 가족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마음을 다잡아 먹었습니다. 거의 부인과 함께 이루어 놓았던 재산들을 다 날리고 나서야 부인에게 어렵게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충격이 컸었고 한동안 화상 채팅도 못하고 서로 뉘나간 사람같이 지냈어요”(오마이뉴스, 2005.6.2).

제보자들의 특성상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심각하게 겪는 가족은 심층면접 사례나 개방형 설문조사를 꺼리는 경향을 보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제보자들은 허심탄회하게 재산 처분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었고 경제적 부담을 많이 느낀다고 토로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실제 수많은 기러기아빠들의 경제적 비용이 매우 크고 이로 인한 심리적 부담이 심각할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한국에서 살 때는 그런대로 중산층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아이들을 유학보내고 나니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새삼 깨닫는다. 경제적 수준은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한다”(사례9)

2. 비경제적 비용

1) 아버지 역할의 상실과 가족 유대의 약화, 그리고 노후준비

제보자들의 경우에, 아버지의 역할에 대하여 심각한 갈등을 겪은 예는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경우 아버지로서 경제적 역할뿐만 아니라 정서적 역할을 하기위해 나름대로 노력했다고 한다. 사례2의 경우 매일 전화, 메신저, 이메일로 아이들과 대화를 나눴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을 놓쳤다는 상실감을 나타내고 있다.

“저는 가족끼리 살아가는게 좋다고 생각해요....가족은 엄마, 아빠가 밸런스있게 맞추어

가면서 살아야 한다고..그런 생활을 놓친 것이 아쉽죠...지금 누가 간다고 하면 그러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리해도 가족이 조화롭게 사는 게 좋거든요.....또 여기 와서 적응하는 것도 어렵고 해서 힘든 점이 많습니다.”(사례2)

“한가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지금 다시 생각하면 가족간의 단란함도 사라지고 정말 견디기 힘들었습니다.”(사례8)

“이런게 꼭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건가 싶긴 하네요. 가족들이 모여서 사는 환경이 더 애들한테 좋을 거 같고 애들이 하고 싶은게 뭔지 그 걸 찾을 수 있게 하는게 더 좋을 거 같은데”(사례10)

그리고 자녀를 조기 유학시킬 때 가장 문제점은 자녀의 사춘기 극복문제인데 아버지가 있어서 해줄 수 있는 것을 어머니 혼자서 하는데 한계가 분명히 있다고 지적한다. 자연히 현지에 있는 어머니의 스트레스가 한국에 있는 아버지에게 전달되고 현지에 가지도 못하여 매우 큰 스트레스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사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 스트레스를 매일 전화하니까 안 받을 수 없지요..엄마가 해결하지 못하니까 힘들다, 짜증난다...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약 1년반정도 걸렸어요..특히 남자애가 심했는데 엄마가 컨트롤이 안되는 부분이 있어요.”(사례2)

“가장 큰 문제는 아버지의 가정교육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저는 아버지로서 자괴감이 생겼습니다”(사례6)

“차라리 대학만 영국으로 보내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성인이라 좀 안심이 되니까요. 사춘기 시절 예민한데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사례8)

언론 기사내용에서는 특히 ‘아버지 역할’에 대한 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었다. 즉 기러기가족에서 남아있는 아버지의 역할은 경제적 차원으로 제한되는 경향을 가진다는 것이다. 재정적으로 아버지에게 계속 의존하면서도 그 밖의 문제에선 자신의 영역에 아버지가 끼어들 여지를 거의 남겨두지 않는다(오마이뉴스 2005.6.2)고 지적한다. 결국 기러기아빠들은 돈버는 기계에 불과한 현대의 가족관계의 소산으로 보고 있다.

“1년 정도 지나서 이젠 그곳 생활에 너무 만족해하고 잘 적응하는 가족들을 보니 저만 소외되는 것 같아 속이 쓰리더군요. 매달 송금을 할 때마다 난 남의 충치를 치료하면서 땀흘려 번 돈 가족들은 너무 쉽게 쓴다, 내가 돈버는 기계냐란 피해망상까지 들어요”(치과의사 박모씨, 경향신문, 2003.10.21)

자녀의 교육 투자를 위한 과도한 지출은 결국 부부의 노후자금 준비에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기러기아빠들은 노후준비에 대한 문제를 걱정하고 있었다. 사례2의 경우 조기유학결과 자녀들이 미국 사립대학에 무사히 입학했지만 대학교육비가 계속 경제적 압박을 주고 있다며 부부끼리 노후준비에 대한 걱정이 많다고 말하였다. 언론에 보도된 한 사례를 보면, S병원 홍보팀장인

박모씨(47)의 경우 퇴직금을 중산 정산한 1억2천만원을 노후 대비를 위해 적금 등 재테크를 할 생각이었는데 아내와 아이들 모두 '당연히 유학 보내야 하는 거 아니냐'는 표정으로 쳐다본 것이 잊혀지지 않는다고 한다(동아일보.2005.8.30).

“당연히 힘들죠...남들은 적금도 해약하고 빚도 낸다고 하던데 저희들이야 그정도는 아니지만 애들 나중에 들어가는 돈이 많을 텐데 몇 년 동안 저축도 못하고 있고 노후는 꿈도 못 꾸니다”(사례10)

2) 생활변화에 따른 부적응

기러기아빠가 되면 일상생활에서 큰 변화를 겪게 된다. 정서적인 문제를 제외하고 기러기 아빠가 당장 겪는 일상적인 문제는 식생활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가사노동의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는 기러기 아빠가 현재 누구와 거주하고 있는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기러기 아빠가 된 후 부모와 동거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본 연구의 제보자의 경우 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가 3사례였다. 이러한 경우에 기러기 아빠의 일상생활은 부모의 통제를 어느 정도 받게 되고 또 가사노동이나 식생활 문제가 해결되므로 생활변화에 따른 적응이 쉽다고 한다. 하지만 많은 기러기 아빠의 경우 집을 축소해서 혼자 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를 선택하고 있다. 이럴 경우 식생활 문제가 가장 힘들다고 한다.

“오늘 저녁은 또 뭘로 해결하나...먹을 자리가 생기면 끝까지 남아 있게 되요 거의. 저녁이면 약속을 잡기 위해 이곳저곳에 전화를 넣어보기도 합니다....저녁먹자고 걸려오면 절대 거절하지 않거든요. 지금은 저녁먹자고 전화를 오면 거절할 수도 없습니다. 이상한 눈으로 보거든요”(사례3)

“일주일에 한번 빨래와 음식을 조금 해주시는 아주머니가 오시긴 하지만 거의 세끼를 밖에서 해결합니다. 보통 세끼를 다 안먹죠. 그 중에서 아침은 보통 우유 하나를 먹습니다. 솔직히 돈이 좀 넉넉하지 못하니 쌀 거 먹으러 자주 가죠. 막창에 소주나 삼겹살에 소주. 그리고 보니 2년 동안 제 옷을 산 게 별로 없네요”(사례10)

위와 달리 상반된 견해를 가지는 제보자도 있었다. 사례1의 경우 '사실 바빠서 돈을 쓸 데도 없어요. 밥은 주로 학교에서 먹는데 점심 저녁 다 학교에서 해결해요. 아침식사는 간단히 선식으로 먹습니다. 주변에서 보니까 기러기 아빠 아니더라도 식생활은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학교 선생님들 거의 점심 저녁을 학교 식당에서 해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처가 있으나 없으나 별 차이가 없어요. 괜히 타인들이 불쌍하게 보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라고 식생활문제는 별로 없다고 강조한다.

대부분의 제보자 모두 기러기아빠가 된 초기 3개월에서 6개월간 극도의 외로움을 호소하였다. 기러기 아빠들은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서 술친구를 찾는다. 제보자들이 초기 적응과정에서 가장 많이 거론했던 해결방법은 '술'이었다. 사례8의 경우 자녀를 영국에 보낸 후 무역관계로 일년에 3-4년 갔고 또 여러 달을 머물고 있었음에도 한국에 있었을 때는 술집도 자주 간다고 한다. 사례2의 경우도 '아이들은 보내놓고 일주일에 두세번은 동료들과 운동하고 술을 마셨다고'했다.

“처음 혼자 생활이 1-2개월 정도 정말 힘들었다. 담배를 끊은지 7-8년만에 다시 피게 되었습니다. 정말 뺨 뚫린 방을 보는 순간 어쩔 수 없었다. 술도 매우 자주 먹었습니다. 그때. 이민간 사촌동생의 경우 처음에는 기러기 아빠로 출발했는데 부인과 아이들을 보내 놓고 외로움을 혼자 이기지 못해 몇 달만에 입원했는데 병원에서는 병명도 모른다고 하여서 겨우 몸을 추슬러서 아예 이민을 갔어요.”(사례1)

“집에 들어가기 싫어요. 혼자 밥 먹으러 식당에 가는 건 더 싫죠.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힘들어요. 이럴 줄 알았다면 다 데리고 왔을 겁니다. 견디기 힘들다고 하니까 이제 아내가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자꾸 술을 먹게 되니까 애인이 생기면 큰일 나는 거니까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사례3).

이렇듯 심리적 공허감과 불규칙적인 식생활로 인해 건강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언론에서 보도된 자료에서는 질병 문제를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서울 혜민병원이 2004년 1월부터 2005년 6월까지 이 병원 소화기내과를 찾은 기러기아빠 8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2% (45명)가 각종 소화기계질환을 갖고 있었다. 환자 45명의 주요 증상 중 과민성대장증후군이 45%로 가장 많았으며 위·십이지장궤양(22%) 기능성 소화장애(18%) 알코올성 지방간(15%) 순이었다(한국경제신문, 2005.6. 19). 이외에 우울증과 고혈압과 같은 성인병은 치명적일 수 있다.

언론 기사 내용을 분석한 결과, 최근 발생한 기러기아빠들의 사망사건 자료를 정리한 표5에 나타나 있듯이 사망에 이르는 기러기 아빠들은 고혈압(50대 기러기 아빠, 한겨레, 2005. 10.17), 심근경색(국민일보, 2005. 10.29), 고혈압 및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조선일보, 2005.3.3), 과로사(40대 대학교수, 경향신문, 2004. 3.27) 등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었다. 기러기아빠들의 심리적 외로움과 경제적 강박관념이 고혈압이나 과로로 연결된 것으로 보인다.

<표4> 2001년도 이후 발생한 '기러기 아빠' 사망 사건

연도	당사자	원인	배경
2005. 10.17	50세	고혈압, 돌연사	사망후 5일만에 발견, 건축사무소 소장, 사업실패
2005. 3. 1	50세	자살, 우울증	4년 비동거, 사업실패
2004. 12. 9	50세	자살	10년 비동거, 사업실패
2004. 11.25	42세	자살	외로움
2004. 4.12	45세	자살	이혼후 양육권 다툼, 역대연봉 은행간부
2003. 10.25	49세	돌연사	
2003. 7. 2	36세	자살	1년 비동거, 사업실패, 본인 외도로 인한 이혼
2003. 3.28	42세	뇌출혈	6개월, 군인
2003. 3.26	41세	심장마비	2개월, 교수

언론 보도의 내용분석 결과 이혼의 사례는 한 건이 보도되고 있었으나 실제로 기러기아빠의 이혼 가능성은 상당히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사례8의 경우 본인은 사업일로 인해 영국방문이 쉬운 편이고 1년에 3-4개월은 영국에 있던 적도 있으니 가족보기가 쉬웠는데도 견디기가 힘들는데

다른 아버지는 정말 못 견뎌다. 그래서 부부이혼율도 높고 주위에 10쌍정도가 있었는데 8쌍이 이혼했다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다음은 언론에 보도된 이혼사례인데, 이 경우 이혼의 주원인이 '배우자의 외도'로 나타나 있지만 그 배경에는 남편의 사업실패가 작용했음을 보여준다.

<이혼 사례>

은행 간부이던 A씨가 음악에 소질이 있는 아들.딸과 함께 부인을 러시아에 보낸 것은 1994년. 자녀들이 외국에서 자리잡으면 부인을 불러들일 생각이었으나 아내는 계속 현지에서 머물렀다. A씨는 은행을 그만둔 뒤 회사를 차렸으나 2년 만에 부도가 났다. 다시 취직한 회사 역시 부도나는 바람에 실적 상태에 놓이게 됐다. 이런 가운데 98년까지 부인에게 2억4000여만원을 보냈다. 부인은 직업없는 남편이 남은 재산을 탕진할 것을 우려해 자신 명의로 바꿔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아파트를 아내 명의로 바꿨고, 별도로 1억원을 송금했다. 그러던 중 부인은 99년 현지인과 사귀게 됐고 2001년 동거에 들어갔다. A씨는 2003년 말 딸에게서 "엄마가 아파트 처분을 위해 한국에 갔다"는 말을 듣고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부인은 "경제적으로 무능한 남편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며 이혼 및 위자료 5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는 "부인은 아파트 등 전체 재산의 50%인 4억원을 남편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서로 적극적으로 연락하지 않는 등 이혼에 대해 공동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중앙일보 2005.1.2).

한편 기러기아빠가 재정적 곤란으로 인해 범죄를 저지른 경우도 있었는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 사례의 경우 범죄를 저지르게 된 과정을 보면 외로움->오락(도박성)->부채과다->신용불량->범죄를 저치게 되었다. 이러한 사례는 기러기아빠들이 독거생활에 따른 외로움과 생활비 마련이나 유학 자금을 꼭 보내야 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범죄에 빠지기 쉽다는 것을 보여준다.

<범죄사례>

2003년 1월 부인과 아들을 뉴질랜드로 유학 보낸 기러기아빠(48세)는 건강식품 판매 이사로 있다가 성인오락(경마, 바다이야기 등)에 빠져 재산을 탕진하고 상품권 위조에 손을 댔다가 철장신세를 지게 됐다. 그는 성인오락 3개월만에 3천만원을 날리고 신용불량자 신세가 되었고 상품권 환전소(10%)를 통해 인터넷 '상품권 제작의 원조'라고 광고하던 D 종합광고 기획사에 접촉하여 5,000원권 문화상품권 38만장(시가19억원)을 위조하였다. 그는 '생활비도 필요하고 가족들을 위해 유학자금도 마련해야 했다'고 진술했다.(국민일보, 2005.10.5)

V. 기러기 아빠의 성과

교육 투자의 경제적 비용이 상당한 액수에 이를 뿐만 아니라 비경제적 비용 즉 비동거로 인한 가정해체 등 극단적인 문제의 가능성이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가족이 기러기가족이

기를 감행하는 것은 자녀의 조기 유학 투자의 기대되는 이익이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조기유학의 성과는 '교육의 질 확보'일 것이다. 조기유학 국가가 대체로 우리보다 선진국 이므로 교육환경이나 교육서비스의 질이 우리보다 높은 수준일 것으로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보자가 기러기아빠 생활을 통해 느낀 교육 투자의 성과는 영어실력, 스트레스 없는 교육환경을 누림, 더 큰 세상을 위한 기초생활, 명문 미국대학 진학 준비로 나타났다.

제보자들은 조기 유학 투자의 기대 이익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는 본토 영어 수준'을 지적하고 있다. 부모의 낮은 영어 수준에 대한 한풀이 일수도 있지만 미래 사회에 대한 불확실성을 '영어'가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나름대로의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사례5의 경우 '영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것'을 큰 성과로 생각하고 있었다. 사례4의 경우 완벽하게 구사할 수 있는 영어를 기본 성과라고 자부하고 있었다. 사례 10의 경우 '요즘 무시할 수 없는 영어도 잘 할 수 있어서 도움은 될 거 같으며 지금은 애들엄마보다 영어 더 잘한다고 하긴 하던데' 라고 영어 실력을 언급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나타난 교육 투자의 성과는 '스트레스 없고 자유로운 교육환경에서 생활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이었다. 그들은 대부분 현재의 입시경쟁에 대한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었고 그런 생활을 하는 것보다 편하고 자유롭게 생활을 해도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대안임을 매우 강조하고 있었으며 이 경우 자녀들이 강력하게 외국생활을 희망하고 있었다.

"아이가 원하는데 어떡합니까? 정말 여기 생활은 밤 11시까지 학교에서 공부하고 또 과외갔다가 1시 넘어야 오지 않습니까? 슬픈 눈으로 한국으로 돌아가기 싫다는 아이를 그런 지옥같은 생활에 다시 넣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사례3)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환경에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면 성장하고 교육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경제적 여건이 허락하면 언제나 같은 결정을 할 것이고 자녀에게 남겨줄 수 있는 것 중 제일 소중한 것이라 생각한다"(사례7)

"아이가 현지 생활 및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 만족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한국내의 어린 학생들에 비하여 자유로움 속에 지내게 한다는 것이 아이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사례5)

"무엇보다 아이들이 스트레스 받지 않고 공부하면서 자기생각이나 주장이 뚜렷해진 것이 제일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사례9)

다음으로 기러기아빠들이 느끼는 성과는 '유수한 미국 대학 진학'이었다. 제보자들 가운데 대부분 미국 또는 캐나다 등지의 대학 입학의 목표로 하는 경우였다. 이러한 제보자의 응답은 매일경제신문이 지난 2003년에 실시한 기러기아빠들에 대한 설문조사결과와 일치하는 내용이다. 이 조사에 따르면 기러기아빠들은 자녀가 조기유학후 국내로 다시 돌아오기보다 현지에 정착하기를 더 바란다고 한다. 즉 응답자의 50%는 자녀들이 현지 대학원에 진학해 공부를 더 하거나 현지 기업에 취업하기를 바란다고 했다(매일경제신문, 2003.8.31).

"향후 영어공부를 잘해서 유학하고 정착하기를 많이 희망합니다. 결국 아이비리그 진

학이 목표거든요. 미국에 유학시키는 가족들 다 그래요”(사례4)

“결과는 대성공입니다. 영국에서 박사학위까지 받고 그 기쁨도 정말 대단했습니다.”(사례8)

“대학을 다 잘 보낸 셈이니 결과가 좋았죠. 아이비리그는 아이여도 웬만한 대학에 장학금까지 받았거든요”(사례1)

마지막으로 제보자들은 한국과는 다른 이국적인 생활, 예를 들어 새로운 환경을 할 수 있는 기회라는 면도 주요 이익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제보자들은 자녀들이 각종 문화생활이라든가 파티나 친구끼리 모임 등은 국내에서도 가능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거주기간에서는 누리지 못하는데 비해 외국에서는 다양하게 즐길 수 있었다는 반응이었다. 사례1의 경우 자녀들이 현지에서 학교생활 외에 박물관, 음악회 등 모든 문화경험을 풍부하게 누렸는데 다양한 문화경험이었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풍부하게 맺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세계 100위권에도 안되는 서울대 보다는 최소한 10위권에 드는 케임브리지에서 공부를 하는 편이 낫다고 결정하였고 국제화시대가 온다는 판단으로 적극 권유했습니다”(사례8)

“조기유학을 통한 성과에 대해 특별히 만족한 것은 없지만 단지 아들의 사고의 폭이 커진 것 같다”(사례6)

“캐나다 문화자체가 가족 중심이고 독립적인 관계로 자연스럽게 가족의 소중함을 알고 스스로의 독립심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사례5)

“총 투자비용이 2년간 2억 5천만이 들어갔어도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지금 다시 보내라고 해도 다시 보낼 것이라고 한다. 그 이유는 자녀들이 넓은 세상으로 진출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한 것...”(사례1)

“문화가 다른 영어권에서 생활을 한다는 자체가 애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돈을 무리하게 써 가면서 여기 애들처럼 스트레스 주고 싶진 않네요. ...앞으로 애가 공부하고 살아가는데 보는 눈이 더 넓어야 하고...”(사례10)

특히 자녀가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시민권자의 경우 공교육비 혜택이나 장학금 수혜기회 등 여러 가지 경제적 이점이 상대적으로 많아 교육투자의 이익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사례1의 경우 아내와 자녀들이 모두 시민권자이므로 적은 비용으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내가 어찌됐든 별거중이고 저소득자여서 미국 국가로부터 중고등학교 때는 사회보장혜택과 학교 장학금을 받았고 대학에 입학한 후로는 장학재단을 통해 장학금 및 생활비 보조까지 받고 있다고 한다. 그는 시민권이 없었다면 돈이 많이 들어서 안 보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자녀가 시민권을 가진 경우 여러 가지 경제적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조기유학을 더 쉽게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자녀들의 현지 적응 또한 기러기아빠들이 생각하는 성과중의 하나이다. 사례5의 경

우 ‘아이가 현지생활 및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 만족하고 있다’라고 한다. 제보자들의 만족도에 대한 질문에서 모든 제보자들은 현지생활 적응에 대하여 가장 처음 언급하고 있다는 면에서 현지적응이 만족도에 첫 번째 관건임을 알 수 있었다. 사례1의 경우도 기러기 가족의 성과라면 아이들이 외국학교에 잘 적응하고 외국생활을 즐기며, 지적 성취나 정서적 적응을 잘하는 것이라고 첫 번째로 지적한다1).

VI. 기러기 아빠의 적응 방식과 해결

1. 독거생활에의 적응 과정과 유형

기러기 아빠들이 가족을 외국에 보내고 난 후 자신의 생활에 적응하는 과정을 제보자들의 경험 과정을 분석하여 보았다. 최양숙(2005)에 의하면 기러기 아빠들은 조기유학을 보내고 나서 부부가 별거하게 됨으로써 가족 간 관계유지 전략으로서 커뮤니케이션과 재회, 방문의 빈도를 조절하는 한편 독거 생활을 유지하여 나가는 동안의 경험과정을 분석하였는데, 전형적으로 1) 당황의 단계, 2) 방황의 단계, 3) 인내의 단계, 4) 수용의 단계로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본 연구의 제보자들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초기에는 공통적으로 제보자들 모두 적응 곤란을 겪었다. 가장 큰 어려움은 ‘외로움’인데 제보자들은 가족이 없는 ‘텅 빈 집’으로 인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충격을 받고 있었다. 그 결과 가족이 없는 ‘텅 빈 집’에 들어가기 싫어서 방황하는 생활로 이어진다. 이러한 시간은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3개월~6개월 정도 걸리는 것으로 보인다2).

이 후 제보자들은 일정기간 초기 충격에 익숙해지면 자신만의 적응 스타일을 정착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 적응 유형은 자기관리 유형이다. ‘자기관리’라는 용어는 모든 제보자들에게서 똑같이 언급이 되는 핵심 단어였다. 충격의 단계를 벗어나면서 제보자들이 깊게 느끼는 것은 ‘자기 관리’의 필요성이라는 것이다.

“누가 나를 관리해 줄 사람이 없잖아요. 내가 하는 수밖에. 옆에서 챙겨주고 잔소리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해야 한다고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내가 안하면 그땐 끝나는 거 아닙니까?”(사례1)

“떨어져 있는 가족 생각해서 술은 많이 줄였습니다. 담배는 끊어 버렸구요. 운동(헬스)도 하고 건강관리를 오히려 더 잘 하고 있습니다“(사례5)

두 번째 적응 유형은 방황 유형이다. 제보자 가운데 방황유형은 독거에 대한 충격을 극복하지 못하고 방황하게 된 유형으로 이러한 제보자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핵심단어는 ‘위축’이다. 아직 완벽히 자신의 결정이 잘한 것인지 판단이 서지 않고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충족되었던 삶이

1) 반대로 자녀들의 현지 부적응은 심각한 비용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2) 앞의 비경제적 비용 부분의 예를 참조

좁은 원룸으로 전락한 것이 적응되지도 않지만 또 다른 대안이 없다는 사실에 위축된다는 것이다).

“별로 생활변화는 거의 없지만 운신의 폭이 매우 줄어들었습니다. 취미생활은 독서를 주로 합니다”(사례6)

세 번째 적응 유형은 향유 유형이다. 독거에 대해서 매우 편하게 생각하고 가족 비동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제보자 가운데 이러한 유형은 없었지만 제보자들과 면접 도중에 ‘타인의 사례’로 언급되었다. 이러한 사례들을 보면 기존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않았음을 은연중 나타나기도 하고, 독거생활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유형으로 파악된다.

“아주 적응 잘하는 기러기아빠도 있어요. 아주 신나게 잘 즐깁니다. 젊은 여성들과 재미있게 지낸다고 하더라구요. 앞집에 사는 분이신데 가끔 길에서 만나면 생기있고 즐거워 보였고 바쁘던데요.”(사례7)

“마누라 잔소리 안 듣는 거는 좋아요.”(사례1)

“미국에 있었을 때 주위에 모대학교수로 기러기아빠 한 분이 있었어요. 그분 말씀이 한국에서 일에 올인하고 방학되면 여기 와서 가족들에게 올인하고..할만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괜찮겠다 싶었어요”(사례3)

자신만의 적응 방식을 확보한 후 제보자들은 자신들의 독거생활에 순응하게 되고 순응하는데 실패하는 경우 가정해체의 결과를 받게 된다. 점차 독거생활에 익숙해지기도 하고, 독거생활로 인한 이점을 합리화시키기도 하고, 또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대해 인내하기도 한다. 그러면서 떨어져 있는 가족과의 커뮤니케이션 등 가족관계에 더 몰입하거나 더 소원해지기도 한다. 가족들과의 관계에 더욱 관심과 노력을 하는 기러기 아빠들은 디지털 매체를 많이 활용하면서 적극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2. 기러기아빠생활의 문제와 극복

지금까지 앞에서 기러기아빠 생활의 비용과 성과를 살펴보고, 적응과정을 살펴보면서 기러기아빠 생활의 어려움을 세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었다. 첫째는 가족 유대관계의 어려움으로 ‘소외감’과 ‘상실감’이다. 외국생활에 행복해 하는 가족들에 비해 혼자 생활하는 자신의 소외감과 외

3) 이렇듯 위축된 기러기 아빠의 사례는 언론 보도를 통해 자주 등장한다. 가령 “기러기아빠는 최악의 상사로 꼽힌다. 매달 수백만원에 이르는 돈을 보내고 나면 지갑이 얇아져 회식 때마다 구두끈을 천천히 매고.... 쓸렁한 빈 집에 가기 싫으니 퇴근도 늦어 부하직원에게도 야간작업을 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경향신문, 2003.10.21)와 같은 기사이다. 그리고 50대 기러기아빠의 사망 사고 현장에 반병쯤 먹다 남은 소주 패트병, 시켜먹은 떡볶이와 냉면 그릇이 밥상에 있었다(한겨레 2005.10.17)는 기사내용은 위축되었던 모습이 적나라하게 나타난다.

로움이 매우 크다. 아버지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은 경제적 버거움보다는 자녀와의 관계이다. 가족 간의 유대가 급격히 약해지고 있음을 느낀다.⁴⁾ 기러기 아빠들이 억울하게 느끼는 것은 재정적으로 아버지에게 계속 의존하면서도 그 밖의 문제에선 자신의 영역에 아버지가 끼어들 여지를 거의 남겨 두지 않는 것이다. 자녀들의 서구화(또는 미국화)에 대해서 수동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음을 내비치기도 하였다. 기러기 아빠들은 자녀와 관계에서 자괴감까지 든다고 토로한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희생물이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다.

“우리 아이들은 한국인이지만 아메리카나이즈되었다고 봐야지요. 특히 큰 아이는 90% 미국인입니다. 자신 문제에 대한 결정은 자신이 거의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랬는데 또 잘하고. 원래 대학도 메디칼 스쿨로 갔는데 중간에 경영 마케팅으로 바꿨습니다. 그게 더 좋다고 합니다. 어찌겠습니까? 대학 들어갈 때도 저는 인종차별 받지 않는 부분은 변호사나 의사 등 전문직밖에 없지 않느냐 정도만 조언했어요. 나중에 배우자도 아메리카나이즈된 한국인이면 좋겠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교육받은 사람 말이 안통한다고 하네요”(사례2)

“아 희생이지요. 희생이고 말구요. 아빠 입장에서는 완벽한 희생이에요. 가족과의 생활 또 친척들과의 관계, 성적인 측면 모두 희생하는 거예요”(사례9)

기러기아빠들의 부부관계는 본질적인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제보자들의 대화 속에서는 상당히 부차적인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자녀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참을 수 있다고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었다. 이미 가기 전에 참아보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보내는 것 아니냐라는 반문을 하는 제보자도 많았다⁵⁾. 제보자들은 직접적으로 자신의 사례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이혼 사례를 언급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자녀를 위해 희생했다는 생각과 그에 대한 보상심리로 인해 자녀와의 관계가 소원해질수록 실망은 더욱 커지는 것을 볼 수 있다.

“현지에서 남편 왔다가 가면 결과적으로 두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막 싸우다 가는 유형과 더 좋은 관계를 가는 유형...막 싸우다 가는 유형은 자신을 희생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내도 스스로 희생물이라 생각하고 서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다툼의 소재가 되더라고요.”(LA 박OO씨)

“한가지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지금 다시 생각하면 가족간의 단란함도 사라지고 정말 견디기 힘든다는 점입니다. 차라리 대학만 영국으로 보내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사춘기시절 예민한데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영국, 황OO씨)

제보자들이 이러한 문제를 극복한 방법은 ‘빈번하게 대화를 끊임없이 하는 것’과 ‘방문할 때마

4) 이러한 가족유대의 상실은 가족에 모든 것을 투자하는 우리나라의 부모역할관에서는 더욱 큰 상처가 될 수 있다. “미국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더라. 부부중심이고 노후 자금을 완전히 자녀에게 올인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다고 하더라. 우리를 이해하는 민족은 유대인이 있더라. 유대인들은 관습적으로 자녀교육에 가정이 올인한다고 한다”(사례4 기러기 엄마)

5) 한편 제보자들은 남성인데 반해 상담자가 여성이기 때문에 부부관계 문제에 대한 언급을 꺼리는 면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가족단합을 위한 이벤트를 여는 것'이었다. 최근에는 전화나 이메일 이외에도 메신저나 화상채팅 등 다양한 대화수단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과거보다 더 용이해졌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러기 아빠들의 자기 존재 인식이었는데 자신이 희생자라고 인식하기 보다는 '가족의 중심'(사례7)이자 '가족을 위해 봉사하는'(사례1) 역할로 인식하는 경우 가족유대관계가 더 돈독하였다.

“저와 멀리 떨어져 지내는 것이 아쉬운 점입니다만 전화로 화상을 통하여 자주 통화를 하고 대화를 하며 아쉬운 점을 극복하려 노력 합니다”(사례5)

“방학마다 15일에서 1달간 방문해서 그 때마다 한 일주일간은 무조건 가족단합대회를 했고 가족여행을 다녔어요. 더 열심히 가족을 위해 봉사한다는 생각을 했죠. 오히려 가족끼리 푹푹 뭉쳤다고나 할까. 이젠 딸들하고 친구처럼 지냅니다. 서로 어려운 생활을 견디어 냈기 때문에 요즘도 서로 아끼고 그렇습니다”(사례1)

“정말 디지털기술 때문에 덕을 많이 봤습니다. 이메일에 화상채팅에...아이들 학교에서 무슨 행사 있거나 무슨 시험 봤거나, 어떤 일이 있든지 그걸 디지털카메라로 찍어서 그날로 당장 이메일로 보내오고...해서 가족들과 항상 함께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살았습니다”(사례1)

두 번째 기러기아빠의 문제는 '혼자 사는 외로움'이다. 한국의 남성들은 독거로 사는 것에 익숙하지 못하고 또 가정을 이루며 사는 것에 대한 기대심리가 높은 의존적인 경향이 있다. 결혼한 독거인 '기러기아빠들'은 결혼하지 않은 독신남성과 달리 생활을 즐겁게 꾸려 나가는데 매우 미숙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러기아빠들은 그러나 국내에 홀로 남은 후 부부간 이별로 인한 외로움(71%)으로 크게 힘들어하고 있으며, 성(性)적 욕구에 대한 불만족도(11%)도 상당하다고 응답했다. 또 집안 대소사 때(21%)나 경제적 부담(18%) 등도 기러기아빠가 된 후 힘든 점이라고 답했다(매일경제, 2003.7.5)

이러한 독거생활이 시한부가 아니라 자녀 대학 입학까지 장기화되거나 외국생활에 즐거운 아내나 자녀들이 계속 연장할 경우 기러기아빠들은 더욱 불규칙하고 향락적인 생활을 하게 되기 쉽다. 본 연구의 제보자들은 대개 이러한 외로움을 주변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해결하는 경향을 보였다⁶⁾. 운동, 술자리도 주변 동료의 도움이 매우 컸다. 또 제보자들과 면접 속에 자기관리의 중요성을 대부분 언급하고 있어서, 혼자 사는 외로움의 극복전략으로 자기관리의 습관화를 채택하고 있었다. 제보자들이 생각하는 자기 관리의 첫 번째 요건은 건강관리였다. 자기관리를 중요하게 언급하는 제보자들의 경우 건강관리를 위해 운동은 필수적으로 하고 있었다. 또 운동, 독서, 영어 학원 뿐만 아니라 회사 일을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하고 있었다.

“학교에서 동료 선생님들 일주일에 2-3번씩 테니스치고 술한잔하고 뭐 그러면서 버텨고, 주말에는 서울에 어머니 계셔서 한 달에 2번 정도는 꼭 올라간다고 생각했거든

6) 혼자가 된 후 스트레스를 투는 방법으로는 술(14%)보다는 스포츠와 여가생활(46%)을 즐기거나 업무에 더 집중(36%)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매일경제신문, 2003. 8. 31).

요...그러면서 지냈습니다. 6개월 지나니까 그냥 적응해야지 하면서 보냈습니다. 저는 정말 일로 대충 커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밤 11시나 12시에 퇴근했고 집에서는 잠만 자고 나왔습니다.(사례2)”

“독서를 주로 하는데 굉장히 많은 양을 하게 되었다”(사례6)

“워낙 술을 좋아하기 때문에 술을 많이 먹지만 아이들 보낸 후 초기에 힘든 시간이 지난 후 4-5년간 취미생활에 푹 빠졌는데 성당도 다니지만 악기 색소폰을 연주하게 되었다. 경제적 문제를 고려해서 주로 돈이 들지 않는 조깅을 즐겨 했다.”(사례1)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을 생각하게 되어 그런지 술은 전보다 줄이게 되고 담배도 끊은 상태이고 건강을 더 신경쓰게 되어 운동(헬스)을 시작하게 되었다”(사례5)

세 번째 기러기아빠의 문제는 ‘경제적 압박’이라고 할 수 있다. 제보자들 모두 경제적 압박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님을 역설하고 있었지만 언론에 보도된 많은 사례는 경제적 문제가 가정해체의 실마리가 되었음을 보여 주었다. 제보자들의 경우는 성공적으로 기러기가족생활을 완료한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언론보도 사례보다 상대적으로 경제적 문제가 심각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기러기 아빠는 경제적 고통을 받을 때도 주변의 원조를 받기 어렵다. 조기 유학이 생존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소위 ‘있는 집’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저변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러기 아빠는 경제적 곤란 속에서 형제자매 등 친인척이나 친구 등 주변인으로 인한 사적 보조가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기러기아빠는 경제적 곤란이 심화될 경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원천을 상실한 것과 마찬가지로 경제적 문제를 외부에 드러내지 못하게 된다.

“기러기가족은 친인척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기 곤란하다. 자녀 외국 공부시키는 것은 질시 대상이예요. 배부른 소리한다고 해요. 우리는 해외여행도 못 갔는데 부모 잘 뒤서 외국에서 공부하는 애들을 왜 도와주냐고 해요. 말도 못합니다. 여유있는 친인척이 그냥 주는 경우는 있어도 말도 못 꺼냅니다”(사례4)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부업’을 하는 기러기아빠도 있다. 기러기아빠 대부분 ‘일’에 몰두하고 있었는데 시간 관리상 목적도 있겠지만 경제적인 목적으로 일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례1의 경우 필수 수업시간 이외에 평균 6시간의 초과 시간을 수업하고 있었다. 또 사례5의 경우 주말에는 부업으로 ‘컨설팅’을 해주고 수입을 벌고 있다고 하였다. 사례10의 경우 부업으로 가게를 운영하면서 주말에 주로 관리하고 있었다.

“나는 원래 빚이나 대출 이런 거는 전혀 안하고 살았다. 나한테 사업가 기질은 전혀 없다. 없으면 없는 데로 대처하라고 했다. 줄이면 된다고 본다. 경제적 부담감을 전혀 느끼지 않았다. 경제적으로 더 잘해 주고 싶은 마음 있었지만 안되는 걸 어찌나...아내도 어쩔 수 없다는 걸 이해하였다.”(사례1)

“정말 열심히 일했고 보통 보다 2.5배 정도 더 일을 했어요.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았고, 현재 제가 인생에서 최고점인데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그때 일을 몰입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사례2)

제보자들의 사례 가운데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지만 기러기가족생활을 하였던 사례1의 경우, 재정적 수준에 맞추어서 송금을 하고 또 소비생활을 하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었다. 또 경제적 부담을 덜 느끼는 사례들은 공통적으로 외국 현지에서 아내들이 아르바이트(한국인 교회 비서나 식당보조원 등)를 하고 있었다는 점이다(사례1, 사례2, 사례10). 아내들이 획득한 적은 돈일지라도 국내 기러기아빠들에게는 경제적 안정감을 주는 것이었다.

VII. 맺음말

이 연구는 심층면접법을 이용하여 기러기 아빠들의 경제적인 생활 모습을 있는 그대로 진술하게 서술하고자 하였다. 연구를 진행하면서 일대일 면접을 꺼리는 연구대상들이 많아서 심층면접은 4명의 제보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차선택으로 개방형 질문지를 활용한 면접을 6명의 제보자에게 실시하였다. 면접에 응한 제보자들은 성공적으로 기러기아빠 생활을 완료했거나 진행 중인 경향이 있어서 기러기아빠에 대한 ‘언론 보도 기사’ 자료를 활용하여 내용 분석으로 보완하였다. 면접 결과, 기러기아빠들의 경제적인 생활 모습에 대한 내용은 크게 기러기아빠들이 비동거 가족상태에 따라 부담하는 비용과 기대하는 이익으로 크게 나누어졌다.

기러기 아빠들이 부담하는 비용은 크게 경제적 비용과 비경제적 비용으로 구분될 수 있었다. 경제적 비용은 실제 유학비용과 생활비 송금액이 핵심적인 부분이지만, 그로 인해 재산상의 변화를 겪게 되는 것도 중요한 문제였다. 기러기 아빠들의 송금액은 3천만에서부터 1억4천만원에 이르는 등 개인적 차이가 무척 큰데, 거주 지역, 사교육비, 유학지의 생활수준, 부인의 소득 여부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 기러기 가족들의 재산상 변화는 기러기 아빠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대부분 보유한 주택이나 부동산, 저축을 처분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유학경비지출에 따라 노후준비를 하지 못하는 점이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었다. 기러기아빠들의 비경제적 비용은 실제 ‘독거’생활에의 부적응 문제로 건강, 가족관계, 업무 등에서 그들이 겪는 문제들과 ‘잃어버린 가족 생활’이다.

기러기 아빠들이 기대하는 성과는 당연히 자녀에 초점을 두고 있다. 제보자들의 경우 영어실력 증진은 공통적으로 기대되는 성과였고 더 나아가 아이비리그와 같은 외국의 좋은 대학 입학은 중요한 성과로 보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지옥 같은 입시준비생활에서 벗어나 ‘아이들의 행복한 생활’을 찾아주고 싶거나 ‘더 넓은 세상에서 살아보는 것’에 큰 가치를 두는 경향도 나타났다. 기러기아빠들이 성과라고 생각하는 점을 정리해 보면 ‘아이들이 스트레스 받지 않고 공부하고 또 영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고 잘 해서 세계 유수의 대학에 입학하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과정에서 얻을 수 있었던 또 하나의 결과는 ‘기러기 아빠들의 독거생활 적응 문제’였는데 그 과정이 고통->수용->포기, 인내, 즐거움으로 전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기러기아빠들이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가족 내에서의 ‘자기 존재성’이었는데 단지 경제적인 수단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또 기러기아빠들이 겪는 어려움은 크게 세 가지-소외감과 상

실감, 혼자 사는 외로움, 경제적 부담-로 정리할 수 있었는데, 기러기아빠 스스로 이 문제들에 대해 극복해 가는 전략을 가지고 있었다. 예를 들어 소외감과 상실감의 문제에 대해서는 떨어져 사는 가족들과 유대를 높이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해 커뮤니케이션을 하였고 방문했을 때는 가족이벤트를 적극적으로 만들었다. 또 혼자 사는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 주변의 도움을 적극 활용하고 있었다. 자신의 처지에 대해 위축되고 주변의 도움에 수동적인 경우 부적응 상태를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부담을 극복하는 방법에서는 자신을 경제적 전능이라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서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 송금하고 그것을 아내와 가족에게 이해시키고 있었고, 가장 최저의 경제적 안정 장치인 비상금, 보험 등은 유지하고 있어서 위험관리를 하고 있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기러기 아빠’의 생활문제에 대한 대책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기러기아빠가 되는 것은 개인 가족의 선택 문제이기 때문에 선택하기 이전에 가족간 충분한 대화와 합의가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러기가족의 문제들에 대한 사전 정보가 매우 중요한데 기러기가족 모임에 참석해 보거나 언론 보도 등을 검색해서 가족회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기유학이 꼭 필요한지, 조기 유학의 목적이 무엇이며 얼마나 오래 걸릴 것인지, 경제적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는지, 서로 적응하지 못하였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사전 준비가 꼭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자신이 희생자라고 인식하지 않을 경우에 기러기아빠생활의 적응이 더 용이할 수 있다는 것은 기러기아빠의 자기인식이 이 생활에서 생존하는데 매우 중요함을 의미한다.

제보자들과 면접하는 과정에서 느낀 점은 기러기아빠로서 살아가기가 매우 힘들다는 것이므로 본인들이 이러한 생활을 감당할 수 있는가에 대한 냉정한 성찰이 필요하다. 그리고 본 연구 결과 기러기아빠로서 고통을 받는 경우, 자신의 성격이나 활동성에 있어서 위축되기 쉽기 때문에 문제를 더욱 어렵게 할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주변사람에게 개방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첫걸음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자신을 타인들과 소통하는 기회를 증진시켜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본인 스스로 적극적으로 기러기아빠 모임에 참석한다든지, 동료와의 모임에서 자신의 문제를 토로하고 도움을 요청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가족의 차원에서 기러기아빠의 생활 문제 해결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유학지에 있는 가족들은 아버지의 어려움에 대해 이해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기러기아빠가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그리고 성적으로 문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가족들은 그의 외롭고 힘든 생활에 대한 보상 심리를 수용하려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매일매일 가족구성원 개인의 신상에서 발생한 사건들을 공유하도록 모든 소통의 통로를 마련하고 가족유대를 위한 이벤트를 만드는 데 노력할 필요가 있다. 또 가족이 거주하는 각자의 지역에서 자신의 일을 최대한 즐길 수 있도록 서로를 격려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더불어 가족의 경제적 수준과 한계에 대하여 가족들이 서로서로 이해하고 경제적 대책을 함께 강구하는 노력이 진행되어야 한다. 제보자들의 경우 경제적 책임이 기러기아빠에게 집중될 때 그 강박관념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매우 높았기 때문이다.

사회의 차원에서 기러기아빠의 생활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기존 언론보도의 경향은 기러기아빠의 생활과 매우 개인적인 일이고 또 사회적으로 외화유출, 가정해체 등의 문제와의 관련성만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기러기아빠의 문제에 대한 사회적 시각은 지나치게 비판적이거나 온정적일 필요가 없다고 본다. 기러기아빠가 10만이상이 되고 있고 기러기아빠생활을 하는 남성들의 연

령이 30-40대인 점을 감안할 때 기러기아빠의 생활문제는 중요한 사회문제로 다루어질 가치가 있다. 따라서 적어도 이들이 문제를 토로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회적 장치는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엄명용(2002)은 필요한 개입으로 첫째 혼자 해결할 수 있는 식사서비스와 둘째, 아빠와 자녀 및 어머니 사이에 커져가는 문화적 격차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전자를 위해서는 식사만이라도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혼자 당당히 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와 공간이 마련되어야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후자를 위해서 아빠와 자녀, 그리고 어머니 사이에 문화적, 사회적으로 서로 기대하는 것을 글로 적어 지속적으로 교환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결과, 기러기아빠들의 문제 해결 방식은 '주변사람들과의 소통'속에 있었다. 유학지에 있는 가족이 아닌 국내 가족과 친지들, 동료나 친구들의 따뜻한 시선과 도움은 이들의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더 나아가 기러기아빠들은 사회복지기관을 통하여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터넷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기러기아빠들의 모임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기초 사회복지기관이나 단체들이 중요한 매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기러기아빠들의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를 기초로 기러기아빠 커뮤니티로 발전시키는 것이 한 예가 될 수 있다.

[참고문헌]

- 김양희 · 장은정(2004). 장기준거가족에 관한 탐색적 연구 -기러기가족에 초점을 맞추어-. 한국가족관계학회지, 9(2).
- 안광복(2004). 조기유학과 기러기가족- 그 원인적 치료를 위하여. 철학과 현실, 60.
- 엄명용(2002). 장기 분거가족의 전문직 남성문제: '기러기아빠'.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0(2), 25-43.
- 이철영(2003). 밴쿠버에서 기러기아빠에게 쓰는 편지. (주)탐메디오피아.
- 조명덕(2000). 한국학생들의 영어권 교육체제로의 이동현상과 가족에 미치는 영향. 경원전문대학 논문집, 22, 173-198.
- 조용환(1999). 질적 연구 -방법과 사례-. 서울: 교육과학사.
- 조은(2004). 세계화의 최첨단에 선 한국의 가족: 원정유학 모자녀 가족사례를 중심으로. 학술진흥재단연구보고서.
- 최경석외(2003). 한국 가족복지의 이해 제2판. 서울: 인간과 복지, 549-561.
- 최양숙(2005). 조기유학 · 가족, 그리고 기러기아빠. 한국학술정보(주).
- 통계청(2005). 2005년도 2/4분기 가계수지 동향.